

'천사의 섬'에서 페달 밟으니 지구가 시원해지네



신안 입자도에서는 갯고랑 카약을 즐길 수 있다.

〈신안군 제공〉



섬여행 홍보를 위해 신안군이 직접 건조한 세일요트 '천도천색호'.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세일요트를 소유하고 있는 신안군은 단거리, 장거리, 스테이(1박2일) 등 3종 투어 상품을 운영 중이다. 〈신안군 제공〉

자전거·요트·카약... 신안 '무동력 레저' 속으로

전남

더워도 너무 덥다. 입추(立秋)가 지났지만 기온이 36도를 오르내린다. 28일째 불볕이다. 마치 한반도가 아프리카로 변한 것 같다. 원인은 온실가스요, 주범은 이산화탄소다.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지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덩달아 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2050년 폭염일수는 현재보다 3~5배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폭염은 폭염을 부른다. 일종의 되먹임 현상이다. 한 발짝만 걸어도 땀이 흥건해지니 자동차 시동부터 걸게 되고,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이산화탄소 배출 도구다. 이러다보면 내년엔 더 더워질 게다. 어찌할 건가. 답은 '신안'에 있다.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에어컨을 켜지 않을 해법 말이다.

◇변화무쌍 '섬 자전거여행'

신안은 대한민국 '섬의 수도'다. 무인도 953개를 포함해 1025개의 섬이 웅기종기 모여 신안군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섬의 4분의 1이 이곳에 있다. 그래서 '섬들의 고향', '천사의 섬'이라는 애칭이 뒤따른다.

섬여행은 배를 타고 가야만 한다. 간혹 다리가 놓여졌지만 1025개 km섬 전부가 다리로 연결됐을 리 만무다. 차를 가지고 들어간들 길이 좁고 비포장이 많아 되레 불편하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선택된 이동수단이 자전거다.

신안군은 자전거여행을 특화했다. 큰 섬을 중심으로 8개 코스, 500km의 섬 자전거길을 개발했다. '천도천색 천리길'이다. 1000개의 섬마다 1000가지 색깔을 지녔다는 의미다.

섬 자전거여행은 강따라 달리는 내륙의 단조로운 라이딩이 아니다. 산 아래 너른 들녘의 논과 밭과 염전을 질주하고(6코스 비금-도초 88km), 해안선 기암절벽을 끼고 돌며(7코스 흑산도 25km), 해질녘 노을을 배경 삼아 모래사장·해변송림에서 한가로이 페달을 밟으면 한 폭의 동양화(4코스 자은-암태 90km)가 따로 없다. 하의-신의도(8코스 78km)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고, 슬로시티 중도(2코스 50km)에서는 시간도 마음도 여유로워져 '느림의 가치'를 배운다.

자전거 동호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있다. 5인 이상 라이더가 신안에서 식사·숙박하면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는, '남도 보고 뽕도 따는' 인센티브 제도다.

◇요트로 바다정원 산책

신안의 또 다른 매력은 '요트 투어'다. 바람을 타고 바람을 가르는 하얀 돛단배 '요트'는 낭만이요 로망이다.

세일(美) 요트 '천도천색호'는 신안군이 지난 2016년 16억원을 들여 건조했다. 지자체 소유 요트로, 전국에서 유일하다. 선체 2개를 나란히 붙인 쌍동선으로 흔들림을 줄였다. 높이 25m 하얀 돛을 단 이 요트는 관광객 44명을 태우고, 최고 속력 10노트까지 운항할 수 있다. 목포항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인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압해항을 모항으로 삼아 자은-암태-팔금-안좌 등 다이나몬드제도를 오간다.

남도한바퀴 이용객 30여명이 승선하자, 요트는 섬을 뒤로 하고 바다로 향한다. 갈매기 한 쌍이 동행한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 요트는 질푸른 바다를 가르다. 바다정원 곳곳에 들어앉은 다도해 풍광은 한 폭의 그림이다. 뱃머리에 올라 두팔을 벌리면 타이타닉 여주인공이고, 하얀 제복에 파이프를 물면 멋쟁이 마도로스다. 선상에서 저녁놀을 바라보며 낚시대를 드리우면 강태공 아닌 해(海)태공이다.

성능 좋은 바베큐 그릴에 삼겹살과 소고기를 구워 멋진 파티를 열고, 노래방기기의 뽕뽕한 사운

자전거 여행

중도 염전·해안 기암절벽 따라 500km 자전거길 8개 코스 특화 5인 이상 라이더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운영 요트 투어

바람 가르며 다도해 풍광 감상 해질녘 선상 낚시·삼겹살 파티 단·장거리...1박2일 투어 마련

카약

입자도 갯고랑서 짜릿한 즐거움 이무기 승선한 용난굴도 명소

드와 리듬을 즐기고, 영화감상도 즐길 수 있다. 살랑살랑 흔들리는 짐승은 이색적이다.

요트 투어는 오전과 오후 한차례씩 운항하는 단거리 투어, 8시간 운항하는 장거리 투어, 요트에서 1박2일을 보내는 요트 스테이 등 세 종류다.

김기영 선장은 "섬여행의 특별한 재미를 홍보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요트"라며 "직접 섬에 올라 체험하는 것과는 달리 바다 한 가운데에서 섬 정취를 관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이나 단체 관광객들이 좋아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두 아들과 휴가 온 배보경(여) 씨는 "어린시절을 화순에서 보낸 터라 아이들에게 엄마나라, 엄마고향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쉽게 접할 수 없는 요트여행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됐다"고 즐거워했다.

◇갯고랑서 신선놀음 '카약'

카약도 즐길 수 있다. 자전거·요트·카약, 모두가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는 무동력 이동수단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신안군 지도읍 점안선착장에서 뱃길로 15분이면 입자도에 다다른다. 12km에 달하는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이 일품이다. 이 백사장(대광해수욕장)은 수심이 깊지 않아 가족 휴양지로 안성맞춤이다. 백사장과 연계된 승마장도 있어 '해변승마'를 체험할 수도 있다.

갯벌에서는 짜릿한 카약을 즐길 수 있다. 구멍조끼를 착용한 뒤 노를 쥘까 카약에 오르면 안전교육지도사가 노젓는 법을 가르쳐준다. 카약은 혼자 또는 둘이 노를 저어가며 탄다. 두려움도 잠시, 천천히 노를 저어 물놀이를 즐기다보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바닷물이 빠지면 만날 수 있는 용난굴은 입자도의 관광명소다. 동굴에 있던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했다는 전설의 동굴이다. 제철을 맞은 민어를 맛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광주일보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남도한바퀴' 인기몰이...4개월만에 2만명 돌파

'담양·구례 숲길여행' 휴가철 1위

전남지역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가 절찬 흥행 중이다. 올해 이용객이 4개월여 만에 2만명을 넘어섰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3월17일 운영을 시작한 '남도한바퀴'는 그동안 573회를 운행해 지난 5일까지 2만743명이 이용했다. 주중 8563명, 주말 1만2180명이 남도한바퀴를 탔다.

이는 지난해 9월3일 2만명을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한달 앞선 기록이다.

남도한바퀴는 지난해 처음으로 버스(사진) 1대당 이용객이 30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평균 36.2명이 탑승했다.

휴가철인 7월말~8월초 주간 베스트는 '담양·구



례 숲길여행'이 차지했다. 탑승 정원 45명을 꽉 채웠다. 젊은이들은 '순천·여수 낭만여행'을 즐겼고, 최고 탑승률을 기록한 코스는 '해남·완도 힐링여행'으로 1대당 평균 42.8명이 이용했다.

섬여행 코스 중에서는 '신비로운 비밀의 정원 고흥 속섬여행'이 단연 인기였다. 속섬은 전남도 민간정원 1호로 지정된 섬이다. '장성·정읍 선비

여행'은 전라도 방문의 해를 기념해 전북과 연계한 상품이다.

남도한바퀴의 장점은 남도 명품 코스를 착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커플 여행으로 안성맞춤이다. 이 때문에 단골층도 두터워지고 있다.

운행사인 금호고속은 남도한바퀴를 벤치마킹해 제주·강원 등 전남 밖 여행 코스의 '버스한바퀴'를 출시할 계획이다.

남도한바퀴 이용 요금은 9900원이며, 예약은 홈페이지(<http://citytour.jeonnam.go.kr>)와 금호고속 전용 상담센터(062-360-8502)를 통해 가능하다. 잔여 좌석이 있는 경우 광주버스터미널인 유스퀘어에서 현장 구매를 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일보 江原日報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충북신문 부산일보 吉林日報 제주新보

新韓報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계절의 보양식 삼계탕 시원한 여름 별미 물회 담백한 별미 민어회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